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교사 간담회

[2021학년도 대입 변화 주요 사항]

1.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규모 이상으로 선발하여 523명 선발 예정
-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변화하였으며 3학년 재학인원의 3%를 각 학교당 추천할 수 있으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계산함.
- 면접은 학생부확인면접 형태로 간소화.
-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 내년부터는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으로 개편이 되며 각 학교 재학인원의 5% 선발 예정. (학년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과목 50%, 일반선택 30%, 진로선택 20% 비율로 반영하며, 진로선택과목은 A:20, B:15, C:10 점수로 반영/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2단계에 5배수로 선발 인원을 늘릴 예정)
- 올해 면접형에서는 교과 점수가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교과점수를 4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1등급인 학생의 점수는 39.56이며 평균 2등급인 학생의 점수는 38.03점임. 서류평가(60점)는 A+,A0,A-,B+,B0,B-,C로 평가되며 한 단계의 점수차가 6점임. 서류평가위원에게 학생의 교과 성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서 재수생들의 유입이 늘어났음.

2.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

- 작년까지 활동우수형 전형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계열 모집단위가 ‘국제형’전형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실질적 증가율은 더 큼.
- 인문사회는 2.5배수 자연계열은 4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 함.
- 학생부 확인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임.
- 수능 이후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낮고 충원률은 높은 편이며 올해 추가모집이 3차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충원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과학인재와 어문학인재 특별 전형이 폐지되면서 해당 전형 지원자들이 활동우수형으로 유입 될 가능성이 높음.

3. 농어촌 전형을 수시와 정시로 분리해서 선발.

4. 정원 외 모집인원에서 시스템반도체특별전형 신설 (삼성전자 제휴 계약학과)

5. 수시에서 미선발 모집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3차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함.

6. 현 고3 3학년 1학기 비교과 평가 영역 제한(수상경력, 창체, 봉사, 출결 미반영, 블라인드 처리). 독서활동은 학생이 스스로 진행 가능하기에 반영. 1,2학년 학생부 기재 내용과 개연성이 있으면서 유의미한 활동은 자소서에서 기록 가능.

[2021학년도 교사 간담회 기본 질문지 답변]

1. 귀 대학에 지원하는 전북 지역 학생들의 지원 결과 및 경향은? (수시 및 정시)

면접형 지원자가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현저하게 적은편이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해내기 어려움. 활동우수형의 경우 지원자들의 서류평가점수나 면접 점수는 전국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치를 보임. 다만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인재 특별전형 폐지와 과학고 학생들의 유입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음.

2. 2020학년도 지원결과를 고려했을 때, 귀 대학에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주요 지원 전략은?

면접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모집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

3. 고교프로파일 및 전형 서류의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서류 평가의 중점 사항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 다만 고교프로파일 제공 폐지로 인해 각 학교의 교과별 대회 운영 방법이나 동아리 편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짐.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 위계 등을 고려할 예정.

4.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 기록의 간소화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대비해야 할 평가 중점 사항은?

각 학생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록 지양.

5.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전북권 학생들이 합격을 위해 보완해야 할 학생부의 영역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북권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나 면접 점수가 전국 대비 낮은 편이 아님. 다만 면접형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6. 2022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

과목의 위계 구분과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중요해짐. 학생이 선택한 과목과 전공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짐. 인문계열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적합성 형태로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대를 준비하던 학생이 국문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음.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목과 모집단위에 따르는 이수 과학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편임.

7. 2022 대입에서 정시 확대에 의한 입시결과에의 변화를 예측하신다면?

일단 특목고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 지원에 대한 경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연세대 정시 모집 단위의 경우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모집 인원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재학생들에게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하지만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진 않음.

[추가 질문 및 답변]

1. 정성 평가에서 점수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

항목별로 나눠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으며 연세대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A+, A-, A0, B+, B0, B-, C)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음. 사정관마다 본인만의 기준으로 먼저 보는 항목이 다름(자소서, 세특, 성적 등). 각 등급별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정규분포가 형성됨. 면접 대상자는 보통 A-, B+ 선에서 결정됨. 한 학생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소서와 추천서를 계속해서 받을 예정임.

2. 블라인드 서류 전형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학처의 특정 인원, 전산 담당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학생부를 받아 지원자 심사과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맵핑을 함. 평가자들에게는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가 제공됨.

3. 코로나 19 상황이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입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3학년은 등교개학 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적인 특수성 때문에 1학기의 비교과 내용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임. 1, 2학년은 등교 개학 이후 학사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3학년과 같이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

4. 학교에서 추천 인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면접형을 지원했을 때의 매력이 무엇인가?

고려대 같은 경우 수능최저 때문에 2단계 올라가는 인원의 폭이 적으나 연대 면접형은 수능 최저도 없으며 모집 인원도 2배 이상 늘어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5. 개인특성이 잘 드러나는 학생부가 무엇인가?

창체 기록 부분이 학교 별로 비슷한 경향이 있음.

자율활동에서 학급 역할(반장, 부반장 등)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비슷함. 학생부에서 별다른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자소서나 추천서를 살펴보고 학생부의 기록을 비교해서 보는 형태도 평가를 진행함.